

## 남원당(南圓堂)

목조불공견삭관음보살좌상(산스크리트어: 아발로키테슈바라)

### 국보

불공견삭관음은 관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른바 ‘변화관음’의 하나입니다. 이 이름은 손에 들고 있는 ‘견삭’이라 불리는 추가 달린 밧줄에서 유래했습니다. 이 관음은 밧줄을 사용해 중생을 구제하고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준다고 여겨집니다.

이 불공견삭관음은 네 쌍의 팔을 가지고 있는데, 첫 번째 한 쌍은 가슴 앞에서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쌍은 왼손에는 연꽃을, 오른손에는 석장(승려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)을 들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쌍은 양손의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허리 높이에서 바깥쪽으로 벌리고 있습니다. 네 번째 쌍은 왼손에는 견삭을, 오른손에는 불자(막대기에 털 등을 매어 단 장식물)를 들고 있습니다.

머리는 높이 묶고 작은 아미타여래입상이 달린 관을 쓰고 있습니다. 이마에는 세로로 된 제3의 눈이 있습니다. 상반신에는 원래 왼쪽 어깨에 사슴 가죽이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지만, 현재는 사라졌습니다.

이 상은 남원당의 본존입니다. 남원당에 원래 있었던 본존이 1181년 남원당의 화재로 다른 모든 상과 함께 소실된 후, 불상제작자인 고케이(1175~1200년경에 활약)와 그의 제자들이 새로운 본존으로 삼기 위해 15개월의 기간 동안 만들었으며 1189년에 완성되었습니다. 육중한 몸과 위엄 있는 표정에서는 나라 시대(710~794년)와 헤이안 시대(794~1185년) 초기의 양식을 모방해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.